

우 리 상 력 를 배 위 우 자 해 고 !

송학신보

준호중앙통신사 공보지

제3호[부제제24호] 준호22(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일에 있어 열정을 모으기 상우에 견지하자!

년말을 로력적 성과로 써 당당히 맞이하자 !

국제정치연구반 제1기 제2차 전체회의 진행

(대전 10월 11일 발
준호중앙통신)

국제정치연구반 제1기 제2
차 전체회의가 10월 3일 충
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본
관 303호에서 진행되었다.

경매하는 량준호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국제정치연구반 제2부회장을 비롯한 국제정치연구반 일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

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대주제로 회원들 간의 그루빠토론이 있었다. 이어 여러 동아리 현안에 대하여 그에 대한 회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

연구반 제1기 제2차 전체 회의 토론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고 채택되었다.

[준호중앙통신]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일본 도쿄 문부과학성 청사 앞에서 하신 발언

일본 정부는 우리 수십만 동포들의 삶의 거점인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궁극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배제되는 이 비참한 현실은 명백히 유엔 아동권리 협약, 그리고 일본이 스스로 제정한 아동기본법의 정

신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입니다. 국적과 민족에 따라 차별받는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배제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차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

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배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엔의 권고를 수용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권리가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의 힘을 믿기에, 누구에게나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일본

이 지향하는 『평화롭고 번영하며 문화적으로 풍부한 국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그 따스한 해살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해빛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찾아온 답변

(준호22(2025)년 10월 30일 보도)

질문 가. 요즘은 국가 간 외교뿐 아니라, 이미지 외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치학 전공자로서, 사회관계망봉사나 미데아를 통해서 형성되는 한국의 외교 이미지가 실제 정책이나 외교 현실과 일치한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피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가. 한 론문(황효이, 2020)에 따르면 국가이미지는 한 나라의 물질적 기반, 국가 정책, 민족정신, 국가 행위와 그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중의 총체적인 평가와 인정입니다. 국가이미지는 한국에서 지난 '70년대 이후 경제가 발전되며 그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론문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혁동적이고 우호적이며 매력적인 이미지로 세계에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동무가 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자면, 이미지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외교가 중요해진다는 것으로 간음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공공외교는 세계화 속에서 각국들이 국제신뢰와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가의 평화롭고 책임감 있는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인터넷 봉사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실지 정책이나 외교 현실과 많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가 간 외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

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이미지의 형성에 주요하게 작동하는 요소들이 주체가 되어 실지 현장 외교 현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둘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질문 나. 한국이 세계 속에서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학생 분이 생각하는 한국 외교의 강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나. 거두절미하며 말하자면, 한국은 정책의 연속성의 정도가 너무 미약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제 아무리 정권교체를 하여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 상정하는 국가리익 등이 그리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가 부족한 점은 그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수준에 따른 외교정책 결정과 국제관계 모델에 있어서, 범세계적 수준, 국가수준, 개인적 수준의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 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지 주변 동기나 선배들의 진로 사례 중 인

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 우리 학과를 거쳐간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사회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공직을 도전하는 학생동무들이 많습니다. 학술의 미를 더 닦는 학생들, 변호사에 도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 공기업은 기본이고, 공무원시험을 보는 학생들, 정당에서 일하며 실지 정치 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 선배 중에 현재 량대 정당 중 한 곳에서 정당사무를 보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는데, 텔레비죤에서 언급되고 본 사건에 일부러 마 선배가 기능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 라.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답변 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문이든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기에 내가 『이렇다』하고 확립하여 답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내 개인적인 연구를 확장

하고 확립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굳이 꼽자면... 할 일에 비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내가 자처하였고, 또 내가 재미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어려워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마.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생긴 진로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나요?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배운 내용을 살리고 싶은가요?

답변 마. 나는 정치학을 보다 확립되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내 개인적인 연구 분야는 크게 두 분류인데, 그 두 분류 모두 주류 분야가 아니기에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대로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린 결심에는 『결국 누군가는 할 것이고, 누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연구 분야 종 한 분야는 어린 친구들의 권리 보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의 교육과정 과목 중에는 『북한정치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적격 교수자가 없어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과목입니다만, 언젠간 내가 자격이 되면 우리 교정으로 돌아와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언급하며 대답을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사중앙에서 년말 맞이 행사 진행 [준호22.11.3.]



(대전 11월 3일 발
준호중앙통신)

회사중앙에서 년말 맞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준호중앙통신

중앙본부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을 비롯한 회사
중앙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올해로 6년
간의 전통을 가진 《츄리
만들기》, 《년말 총화사

항 점검》 등 다양한 의제에
서 비롯된 토론이 있었다.

[준호중앙통신]

도교구시 2026년 대학기실 02월 충자거 [준호22.10.29.]

(대전 10월 29일 발
준호중앙통신)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 《충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0일 구성되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와 더불어 여러 단과대학, 여러 학과단위들의 선거를 공고하였다.

일부 단위들을 제외하고 여러 학생동무들이 여러 단위에서 치뤄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선거는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치뤄지며 학우들의 투표률이 개표기준에 미달된 단위들에 대해서는 6일까지 연장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준호중앙통신]

새해 까지
5 6 !

충대 정치외교학과 40돐 기념행사 성공적으로 진행 [준호22.11.03.]



(대전 11월 3일 발
준호중앙통신)

대전광역시의 충남대학교에서 10월 31일에 정치

외교학과 40돐 기념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기념행사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하누리 강당에서 15시부터 진행되었다.

기념행사에는 충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동무들, 졸업생동지들, 전임교원동지들, 명예교수동지들이 참가하였다. 기념행사에서는 충대 정치



외교학과 식구들 간의 뉴대와 련대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세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기념행사의 막바지에는 학

과 전체 식구들 간의 화목한 저녁 식사자리가 있었다.

[준호중앙통신]

《준호중앙통신사》는 경매하는 량준호동지의 일거수일투족과 국내 / 외 정세를 전합니다.

《송학신보》 준호22(2025)년 제3호 [루제24호]; 발행 - 준호22(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준호중앙통신사 보도국

저작권 2025 © 준호중앙통신사